

12/22/24

설교 제목: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사도행전 1 장 3-11 절, 요한계시록 1 장 7-8 절

(행 1:3)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행 1: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행 1: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행 1: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행 1: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9)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행 1:1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행 1: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 1: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 1: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Merry Christmas!

2024 년 성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온 세상이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가는 곳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해 예쁜 성탄 장식들로 가득합니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케롤이 흐릅니다.

지나가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이 흥겹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성탄을 저토록 반기는 것일까요?

2000 여년 전에 예수가 태어난 일을 가지고 어째서 2000 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온 인류가 기뻐하고 축하하며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온 인류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 여년 전 성탄을 예언했습니다.

(사 7:13)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사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마 1: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 1: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마 1: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 1: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마 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듯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다윗의 영적 자손으로 이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예수님이 이땅에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세상적인 구원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하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 왕 때와 같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강대국으로 만들어 줄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세상적으로 보기에 힘없고 아무런 권세도 없는 보잘 것 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줄 세상적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라는 영원한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줄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하기는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모든 행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자신들도 잡혀 죽을까 두려워하여 숨어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먹고 살 일을 걱정하여 예전처럼 고기 잡는 일을 하러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 40 일을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사이 제자들에게 10 번이나 나타나 보이시며 당신의 육체적 부활을 증거하셨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행 1:3)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 1: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행 1: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갔던 모리아 산이며,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고, 예수님이 목박혀 죽으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부터 진리 운동이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삭의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함으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곳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약속된 성령께서는 오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모든 신약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 오해를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인지를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졸곧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독립과 회복을 통하여 실현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으며, 그렇게 되는 날 자신들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심으로 깨어졌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되살아났습니다.

(행 1: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행 1: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모르실리가 없는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즉답을 피하십니다.

대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하게 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령을 받는 것이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필수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 영역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온 세계로 확장하십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지 40 일만에 승천하십니다.

(행 1:9)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합니다.

(행 1:1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행 1: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에 매진할 수 있게 하는 동력과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은 온 인류가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 당했을 때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세월이 흘러 대부분의 사도들이 세상을 떠났고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밧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도로 살아온지 60 년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떤 세상적인 미련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려갈래야 더 내려갈 곳도 없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천사로부터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감동과 감격으로 뜨거워져 하나님께 영광송을 올려드립니다.

(계 1: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 1:6)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노래합니다.

겸손한 섬기는 구세주로 이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구름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초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몰라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림 때는 믿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확연히 보게 될 것입니다.

(계 1: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믿어 의인이 된 자와 죄인을 구별하셔서 의인은 천국 하나님 나라로 죄인은 지옥 유향 불못으로 보낼 것입니다.

이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입니다.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탄식과 후회와 영원한 좌절의 큰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누구에게도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 불변하신 심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장차 오셔서 당신이 섭리하신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계 1: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인 동시에 마지막이 되셔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꿈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성취의 절정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징조로 보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고 뜨거워집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